*영어어문교육, 15*권 **1**호 **2009**년 봄

구절동사의 의미의 예측성*: *go down*을 중심으로

정춘희
(공주대학교)

Jung, Choon-Hoi. (2009). The phrasal verb and the predictability of its meanin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1), 349-367.

English phrasal verbs which are combination of verbs with particles are often a particular problem for learners of English. The reason for this is that students may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combination, even though they may be familiar with both the verbs and particles. In this paper, the meaning of phrasal verb *go down* is analyzed to show that its meaning can be derived from the combination of *go* and *down* through such metaphors as UNIMPORTANCE IS DOWN(IMPORTANCE IS UP), LESS IS DOWN(MORE IS UP), FAILURE IS DOWN(SUCCESS IS UP), INACTIVITY IS DOWN(ACTIVITY IS UP). This means the combination of phrasal verbs is not just arbitrary.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the meaning of phrasal verbs can be predicted from their components, verbs and particles ,and we should not necessarily learn the meaning of phrasal verbs by heart.

[family resemblance/trajectory/landmark/atemporal relation/prototypical meaning/peripheral meaning/extension/figure/ground, 가족 유사성/탄도체/지표/비시간적 관계/원형의미/주변의미/의미 확장/모습과 바탕]

Ⅰ. 서론

구절동사는 동사와 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요소의 의미가 구절동사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이기동, 1992, 1995).

첫째, 구절동사의 의미에 동사와 부사의 의미가 분명히 반영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She went out의 go out라는 구절동사에는 go와 out 각각의 의미가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

둘째, 구절동사의 의미에 동사의 의미는 분명히 반영되나 부사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예컨대, Drink your medicine down에서 drink의 의미는

* 본 논문은 2008년 공주대학교 자체연구비로 지원된 연구임

분명히 드러나지만 down의 의미는 분명치 않다고 여겨질 수 있다.

셋째, 구절동사의 의미에 동사와 부사의 의미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이다. 예컨대, The long skirt went out after a short season of popularity에서 skirt는 무생체로서 스스로 물리적 공간을 이동한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go의 의미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out 또한 물리적 공간상 어느 영역의 안쪽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방향이나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 흔히 관용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둘째와 셋째의 경우를 좀더 살펴보면 다른 식의 풀이도 가능해 보인다. 우선 둘째의 down을 보면 우리가 약물을 먹으면 약물은 높은 위치에 있는 입안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위장 속으로 이동해 내려가지 않는가? 따라서 down은 약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동하는 이동방향 및 그 결과 약물이 위장 속에 와 있음을 나타냄으로 down이란 부사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셋째의 go out은 첫 번째 go out의 비유적 확장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우선 She went out의 뜻을 풀이해보면 go는 주어인 She가 화·청자의 시야에서 사라짐을 뜻한다. 그리고 out은 주어의 이동방향으로서 주어가 방과 같은 실내공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함을 나타내준다. 그 다음 The long skirt went out의 뜻을 풀이해보면 go는 롱 스커트를 입는 유행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따라서 「사라졌다」는 점에서 She와 함께 쓰이는 go가 skirt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스커트가 이동하는 개체로 개념화되고 있다. 그리고 out은 「유행하던 시기」라는 시간영역 안에서 바깥쪽으로의 이동방향을 나타내준다. 따라서 첫 번째의 out과 셋째의 out의 차이점이란 전자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이동방향인데 비해 후자는 시간이란 추상적 영역에서의 이동방향이라는 점뿐이다(Lakoff, 1980, 1987).

이런 식으로 풀이해보면 첫 번째 go out은 원형적 쓰임이며, 세 번째 go out은 원형으로부터 은유를 통한 확장된 쓰임에 불과함으로 이들 의미는 연속 변차선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Bolinger, 1971. Stroka, 1972)

따라서 관용어는 그 구성성분의 의미와 무관한 독립된 의미를 갖고 있다거나 여기까지는 관용어이고 여기서부터는 관용어가 아니라는 식의 이분법보다는 원형의미(prototypical meaning)로부터 주변의미(peripheral meaning)로의 의미확장(extension)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이기동, 1997, 1998, 2000).

본 논문은 go down이라는 구절동사의 의미가 go의 의미와 down의 의미로부터 합성되어 나온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go가 원형의미로부터 어떻게 확장되어 쓰이며, down 또한 원형의미로부터 어떻게 확장되어 쓰이는가를 통해 go down도 원형의미에서 어떻게 확장의미를 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흔히 관용어라고 불리우는 구절동사의 의미도 구성성분의 의미로부터 예측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II. go down의 의미확장

go down의 의미를 분석하기에 앞서 go down을 구성하는 go와 down의 쓰임을 분석하기로 한다.

1. go의 의미분석

이동동사 go는 주어인 어떤 개체가 화·청자가 있는 P_1이라는 장소를 떠나 화·청자가 없는 P_2라는 장소에 도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과정을 좀더 세분해본다면, 주어는 우선 동작이 정지된 상태에서 동작을 취하게 되며(action or activity), 또 이러한 동작을 통해 공간상 이동하게 되며(movement), 그리고 이동의 결과 화·청자가 없는 장소인 P_2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go의 과정은 come의 과정과 유사하다. 즉 go와 come은 하나의 상황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차이점이란 go의 경우에는 화·청자가 P_1에 위치하고, come의 경우에는 화·청자가 P_2에 위치한다는 것뿐이다.[1]

그럼 go의 쓰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He wanted to go home, but she wanted to stay.

(1)에서 go는 주어가 화·청자가 있는 곳에 있다가 home이라는 다른 장소를 향해 떠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때 주어는 사람으로서 정지된 상태에서 동작을 취하게 되고, 이러한 동작은 제자리에서의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공간상 home을 향한 장소이동이 일어나며, 또한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목적지인 home에 도착하게 된다. 이러한 go는 원형적인 쓰임으로써 동작, 이동 및 도착의 의미가 모두 드러나고 있다.

(2) After John went, his wife moved into a small house.

(2)에서 go는 John이 아내와 이혼하여 헤어진 상태가 아니고, John이 사망했음을 뜻한다. 그런데 사망의 뜻으로 go가 확장되어 쓰이는 이유는

[1] 인지문법에서는 주어진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개념화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관습적 영상이란 용어로 설명한다. 관습적 영상에는 어느 상황이 해석되는 구체성의 수준, 낱말이 가리키는 대상의 구조 및 상황을 관찰하는 원근법 등의 차원들이 속한다. 원근법이 적용되는 동사의 짝으로 go/come, give/take, borrow/lend, buy/sell 등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의 똑같은 상황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묘사함으로 관습적인 원근법이 다르다.

이혼을 통해 떠나는 것과 사망을 통해 떠나는 것 사이에는 '떠난다'는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아있는 John이 떠나는 원형의미로서의 go가 사망으로 인한 떠남의 의미에도 확장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주어가 이동을 하지만 사람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3) The roots of the plant go deep.

(3)의 주어는 유생체로서 성장함에 따라 뿌리가 점점 더 땅속으로 뻗어가고 있음을 go가 나타내준다. 즉, 화·청자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땅의 표면임으로 식물의 뿌리가 땅속으로 뻗어갈수록 이것은 화·청자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하는 셈이 된다.

(4a) Your suggestion will go before committee.
(4b) The house went cheap.

(4a)의 go는 위원회로 제안이 전달되는 관계를 나타내준다. 이때 주어는 추상체이지만 주어가 화·청자의 곁을 떠나 위원회로 이동하고 있음을 go가 표현하고 있다. 즉, (1)과 같은 원형의 go와 (4a)의 go는 다같이 '이동'이라는 의미를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4a)에서도 (1)의 go가 비유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4b)의 주어는 구상체이지만 집이란 건물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의 소유권이 이동하고 있음을 go가 나타내준다. 즉, 집이 팔린다는 것은 그 집의 소유권이란 추상체가 이동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따라서 이동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비유적인 의미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5a) The summer is going fast.
(5b) My sight is going.

(5a)에서 go는 여름이란 계절이 화·청자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즉, 여름이란 시간이 이동하는 개체로 개념화되어 비유적인 의미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 문장에서 go대신 come이 쓰인다면 여름철이 화·청자를 향해 접근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볼 적에 무엇이 사라지는(disappear) 것은 go로 개념화되고, 무엇이 나타나는(appear) 것은 come으로 개념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b)에서는 시력이 화자로부터 이동하여 떠나고 있음을 go가 나타내준다. 이처럼 (5a,b)는 주어가 추상체이지만 이동하는 개체로 개념화되고 있다. 즉, 이동한다는 점에서 go의 원형의미가 비유적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6) The story goes that he was murdered.

소문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소문이 화자의 입을 떠나 다른 사람의 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화자로부터 이동하여 멀어져 간다는 점에서 go의 원형의미가 소문이란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게 된다.

(7a) The belt's too short it won't go round my waist.
(7b) A pound doesn't go far these days.

(7a)의 go는 '도달(reach)'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벨트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벨트의 끝부분이 벨트의 시작부분에 와 닿지 않고 있음을 go가 나타내준다. go의 원형의미는 정지돼 있던 주어가 활동을 시작하고 또 이 같은 활동은 장소이동으로 이어지며, 그리고 장소이동의 결과 주어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는데 (7a)의 go는 이중에서 도달의 의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7b)의 go는 1파운드라는 돈이 도달(reach)할 수 있는 범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1파운드라는 돈이 멀리 가지 못한다는 것은 물가의 상승 등으로 돈의 값어치가 별로 없음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7b)의 go도 (1)의 go와 도달(reach)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엿보임으로 의미확장이 가능해진다.

(8) The valley goes from east to west.

(8)에서 주어는 구상체이지만 주어 스스로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이 문장에서 이동하는 것은 객관적인 주어가 아니고 화자의 시선이다. 즉, 화자의 시선이 계곡의 동쪽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2]

---

[2] 대상이 정지해 있는지 혹은 움직이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주관적 해석에 좌우되는 수가 많다. 대상을 지각하여 언어로 기술하는 과정에는 대체로 객관적 이동인 대상의 물리적 공간 이동과 개념자 자신의 물리적 공간 이동, 그리고 주관적 이동인 개념자의 시선의 이동 등이 있다. Langacker(1991)의 예를 들어 본다.

ⓐ Venessa jumped across the table.
ⓑ Venessa is sitting across the table from Veronica.

ⓐ에서는 이동의 경로를 나타내는 전치사 across 앞에 이동동사 jump가 쓰이고 있다. 그리고 주어는 유생체이다. 이때에는 주어가 물리적 공간상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이동을 뜻하지 않는 sit가 쓰이고 있으므로 주어는 물리적 공간상 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동경로의 전치사 across가 쓰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동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는 것인데, 이는 Veronica를 참조점(reference point)으로 하여 지표(landmark)인

이처럼 (8)의 go는 이동이라는 점에서 원형의 go와 의미상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의미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9) She went house-hunting at the weekend.

(9)의 주어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장소이동을 하고 있으며 장소이동의 목적은 셋집이나 파는 집을 찾는데(house-hunting) 있다. 따라서 이 때의 go는 주어의 장소이동의 의미와 -ing 형태의 동사가 갖는 활동(activity)의 의미를 둘 다 갖고 있다.

(10) Don't go blaming yourself!

(10)의 go는 장소이동의 의미가 없다. 그대신 자신을 책망한다(blaming yourself)는 활동이 있음을 뜻한다. 이 같은 의미는 (9)의 go로부터 확장되는 것 같다. 즉, (9)의 go는 장소이동 및 활동의 의미가 있는데 이중에서 활동의 의미가 (10)의 go와 공통됨으로 이를 기초로 의미확장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11) The engine's going now.

(11)에서 기계는 공간상 장소이동은 없고 정지된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go가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활동이란 점에서 go의 원형의미와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이 엿보여 의미확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12a) Ducks go "quack"·
(12b) So then she goes "Don't you ever do that again!".

(12a)에서 go는 오리들이 이리저리 장소이동을 하는 의미가 아니고 제자리에서 있는 오리의 입에서 꽉꽉 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12a)의 go는 “quack”이라는 소리가 오리를 떠나 시간선상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2b)에서 주어는 장소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에 서서 ‘제발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즉, go는 언어활동이 시작됐으며 그로 인해 소리("Don't you ever do that again!")가 화자의 입을 떠나 시간선상에서 청자를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다음으로 동사 go는 상태의 변화 내지는 상태의 지속의 의미로 쓰이기도

---

table을 가로질러 탄도체(trajector)인 Venessa의 위치까지 개념자가 마음속에서 경로를 추적(mental scanning)하고 있음을 뜻한다.

하는데 우선 상태변화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13a) My voice has gone because of my cold.
(13b) He's gone mad.

go의 원형의미에서 주어는 화·청자가 있는 장소 P_1을 떠나 화·청자가 없는 장소 P_2로 이동하는데, 상태변화의 경우 P_1은 어떤 물체의 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P_2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다. 물론 P_2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주어가 P_1을 떠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났음을 뜻하게 된다.

(13a)에서 내 목소리가 정상적인 상태를 떠나있음을 go가 나타내준다. 따라서 나의 음성이 현재 비정상적인 상태임을 뜻하는데 어떤 상태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13b)에서는 그 남자의 정신상태가 정상상태에서 떠나있음을 go가 나타내주는데 여기에서는 P_2에 해당하는 비정상상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주어의 정신상태가 미친 상태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go는 정상상태를 떠나는 것을 의미함으로 go 뒤의 형용사는 자연스럽게 비정상적이거나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예: The milk went *sour*, My hair is going *gray*, He is gone *blind.*)

(14a) Her complaints went unnoticed.
(14b) Everything goes fine.

(14a)에서 이동하는 것은 그녀의 불평자체가 아니라 그녀의 불평이 주목받지 못하는 상태가 시간선상에서 지속되었음을 go가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이때의 go는 공간상의 이동의 의미는 없고 단지 시간선상에서만 어떤 상태가 움직이고 있음을 뜻한다.

(14b)에서는 좋은 상황이 시간선상에서 흘러가고 있음을 go가 나타내주고 있다.

이상 (14a,b)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태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이동하는 개체로 개념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down의 의미분석

X down Y 구조에서 down은 탄도체인 X가 높은 위치나 장소로부터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그 결과 X가 공간상 낮은 곳에 위치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이때 X가 움직인 과정은 바탕(ground)에만 있고 모습(figure)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15a) She came down from her bedroom.
(15b) He climbed down the tree.

(15a)에서 동사 come은 주어가 화·청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함을 뜻하고, down은 주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이동의 방향 및 이동한 결과 주어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낮은 곳에 와 있음을 뜻한다.
(15b)에서 climb은 주어가 수직선상의 나무 위에서 기어서 이동함을 나타내며, down은 주어의 이동하는 방향, 즉 주어가 나무의 꼭대기로부터 아래쪽으로의 이동 및 이동한 결과 주어는 나무 꼭대기에 있지 않고 나무의 아래쪽에 와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은 down의 원형적인 쓰임 들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주어가 공간상 위쪽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장소이동을 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down은 아래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동사 fall과는 좀 다르다. 동사 fall은 위쪽에서 아래로 이동하지만 이동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관찰된다. 즉, 동사 fall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동하는 과정이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에 반해 부사 down은 이동의 과정이 한 눈에 관찰되는 것으로 시간은 바탕에만 있고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down은 복합비시간적 관계(complex atemporal relation)이고 fall은 복합시간적 관계(complex temporal relation)이다(Langacker, 1987, 1991.)

(16a) He sat down on the edge of the bed.
(16b) Go and lie down on your bed.

(16a)에서 주어는 높은 장소(P_1)으로부터 낮은 장소(P_2)로의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에서 자세를 바꾸는 동작을 취하고 있다. 즉, 주어가 서 있던 자세로부터 앉는 자세를 취하는데 이런 경우 주어의 몸은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이동을 하게 된다. 예컨대 주어의 머리를 기준으로 볼 적에 서 있는 사람이 앉게 되면 머리는 위로부터 아래로 이동하며 그 결과 머리부분은 위에 있지 않고 아래쪽에 와 있음을 down이 나타낸다.
(16b)에서처럼 서 있던 사람이 눕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머리부분은 위쪽으로부터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그 결과 머리가 낮아졌음을 down이 나타낸다.
이처럼 (16)의 down은 주어가 제자리에서 자세변화를 함으로써 주어의 높이가 낮아졌음을 나타낸다.

(17) He put his drink down on the table.

(17)에서 술잔은 주어의 손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장소이동을 하는데(put), 이때 장소 이동의 방향을 down이 나타내준다. 즉, 술잔은 주어의 손이라는 높은 곳으로부터 식탁이라는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술잔이 식탁 위에 와 있는 상태를 down이 나타내준다.

(18a) We turned the boat as the wave bore down on us.
(18b) He's flying down to London from Scotland.
(18c) When's John coming down from Oxford?
(18d) A plot of land was handed down from father to son.

(18a)에서는 파도가 수평면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bore)있는데 down은 파도의 크기가 우리보다 커서 파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크고 강한 것은 우위(up)에 있고, 작고 약한 것은 하위(down)에 있는 것으로 개념화되어 힘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파도가 힘에 있어서 하위에 있는 우리를 향해 이동하는 것이 공간상 위쪽으로부터 아래쪽으로의 이동처럼 묘사되고 있다.

(18b)에서 주어는 높은 장소로부터 낮은 장소로의 이동이 아닌 수평면에서의 이동을 한다. 그런데 down은 이동의 방향 및 그 결과를 나타냄으로 Scotland는 높은 곳으로, London은 낮은 곳으로 보고 Scotland로부터 London으로의 이동방향 및 이동한 결과 주어가 London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down의 쓰임은 지도상에서 Scotland가 London보다 위도상 위쪽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

(18c)에서 주어는 Oxford 대학을 떠나 고향인 시골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John이 살고 있는 고향과 Oxford라는 대학 중에서 어느 쪽이 실제로 공간상 높은 곳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down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학이 있는 도시가 시골보다 중요성에서 우위에 서 있음을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즉, 중요도가 높은(up) 대학으로부터 중요도가 낮은(down) 시골로의 이동방향 및 그 결과가 down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상 (18a,b,c)를 보면 down은 수직선상의 높은 위치로부터 낮은 위치로의 이동으로부터 수평선상에서의 수평이동으로 확대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8d)에서는 주어가 수직선상으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수평선상으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시간선상의 이동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down이 쓰일 수 있는 것은 시간선상에서 부모는 자식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계도(family tree)를 그려보면 부모로부터 자식이 태어남으로 가계도상 부모의 위치는 자식보다 위쪽에 나타난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자식으로의 시간선상의 이동은 위쪽으로부터 아래쪽으로 공간상 이동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Caroll, 1962; Lakoff, 1980).

(19a)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has come down by 20%.
(19b) The drink should not be watered down.

(19a)에서 down은 지방정부의 지출이 공간상 장소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이동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지출량이 감소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down이 쓰일 수 있는 이유는 세상지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을 많이 넣을수록 타이어의 높이는 올라가고 반대로 바람의 양이 적을수록 타이어의 높이는 낮아진다. 따라서 양의 증가는 높이의 증가(up)와 관계가 있고, 양의 감소는 높이의 감소(down)와 밀접한 관계가 성립된다. 바로 이 같은 세상지식을 통해 (19a)와 같은 지출량의 감소가 down으로 표현되고 있다(Haiman, 1980).

(19b)에서 down은 술에 물을 섞어서 알코올의 농도가 묽어지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물을 섞지 않았을 경우 술의 알코올 농도가 50도였다면 물을 섞은 후 알코올 농도가 20도로 떨어지는 경우이다. 여기서 물을 섞는 방법(watered)을 통해 50도에서 20도로 알코올의 농도가 떨어지는 관계를 down이 나타내준다.

이상 (19a,b)를 통해서 우리는 양이나 크기, 정도, 강도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감소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공간상 이동하는 것으로 개념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a) The hardest rock in the world will be ground down in time.
(20b) Learn to break down large tasks into manageable units.

(20a)에서 단단한 바위의 표면이 비바람과의 마찰로 닳아서 바위의 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grind는 주어를 어떤 단단한 물건에 대고 문지르는 방법을 나타내고, down은 바위의 높이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여 그 결과 바위의 높이가 낮아졌음을 나타낸다.

(20a)와는 달리 (20b)의 down은 추상적인 영역에 확대 사용되고 있다. 즉, (20b)에서는 큰 작업이 작은 단위로 해체되고 있다. 따라서 down은 큰 쪽으로부터 작은 쪽으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이것은 (19)에서 살펴 본 것처럼 크기의 감소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공간상 이동을 하는 것으로 개념화됨을 보여준다.

(21a) The engine will take half an hour to cool down.
(21b) We finally narrowed down the list of candidates to three.

(21)에 쓰인 cool, narrow 등의 동사는 그 자체가 양적으로 적거나 강도가 약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down과 결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동사 하나만 쓰이는 경우와 부사 down과 함께 쓰이는 경우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21a)에서 뜨거워진 엔진의 온도가 식어가는 과정이 cool로 나타난다. 그리고 엔진이 식어서 우리가 원하는 적정한 온도에 와 있음을 down이 나타낸다. 즉, down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결과 주어가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The engine will take half an hour to cool은 엔진이 식어가는 과정만 드러나고 있을 뿐 그 결과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21b)에서도 지원자들의 숫자를 좁히는 동작이 narrow로 표현되고, 좁힌 결과 지원자들이 세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down이 나타낸다. 이에 비해 We finally narrowed the list of candidates에서는 지원자들의 숫자를 좁혀 갔다는 과정만 드러날 뿐 그 결과 지원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22a) The lid of the box was nailed down.
(22b) Screw the cap down tightly.

(22)의 down은 고정(fastening)의 의미로 쓰인다. 이는 우리들의 경험으로부터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이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어서야(up) 한다. 그리고 우리가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down) 우리는 이동하지 못한다. 따라서 up은 이동하는 것으로 개념화되고 down은 이동하지 않는 것, 즉, 고정된 것으로 개념화된다.

(22a)에서 상자 위에 뚜껑만 올려놓으면 뚜껑이 상자 위에서 이동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뚜껑에 못질(nail)을 하는데 그 결과 뚜껑이 상자 위에서 이동하지 못하고 고정된 상태를 down이 나타내준다.

(22b)에서 병뚜껑을 돌리면 병뚜껑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며 그 결과 병뚜껑은 병에 고정되게 된다. 따라서 병뚜껑이 병 위에 고정되는 방법이 screw로 표현되고, 그러한 동작의 결과 병뚜껑이 아래로 이동하여 고정된 상태임을 down이 나타내준다.

(23a) The team beat our team down.
(23b) He fought his anger down.

(23a)에서 down은 우리 팀이 패배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승자의 모습과 패자의 모습이 다름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승자는 자신감이나 만족감 속에서 자세를 곧게 세운다. 즉, 어깨를 쭉 펴고 머리고 곧게 세운다. 따라서 승자는 up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에 비해 패자는 자신감의 상실로 어깨도 늘어지고 머리도 숙이게 되어 자세가 낮아진다. 따라서 패자는 down으로 개념화된다(Kővecses, 1986).

(23b)에서 down은 주어의 감정이 억압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것 역시

억누르는 강자의 자세와 억압당하는 약자의 자세를 살펴보면 전자는 의기양양하여 자세가 곧게 세워지겠지만(up), 후자는 의기상실로 자세가 굽어지게 됨(down)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강자의 신장은 약자의 신장보다 클 수가 있다. 이 같은 이치에서 억압되는 것은 down으로 개념화된다.

(24a) If there's a beast, we'll hunt it down.
(24b) My TV has broken down.

(24)의 down은 동작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얻어진다. 예컨대 물이 들어있는 통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놓으면 물의 높이가 위로부터 아래로 이동하게 되며 그 결과 물의 높이가 맨 바닥(down)에 오게 되면 더 이상 물은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이 몽땅 빠져나가서 물 빠지는 동작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나온 동사의 동작의 완료와 down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

(24a)에서 주어는 목적어인 사냥감을 쫓는데(hunt), 결국 사냥감을 잡는데 성공하게 되면 사냥이라는 동작은 완료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동작의 완료가 down으로 표현되고 있다.

(24b)에서는 TV가 고장이 났지만 그런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남으로써 TV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완료되었음을 down이 나타내준다. 즉, TV가 전혀 작동되지 않음을 나타내준다.

(25) Can't you get your medicine down?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약은 위쪽에 있는 입안으로부터 아래쪽에 있는 위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처럼 위쪽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방향 및 이동한 결과 약이 위장 속에 내려와 있음을 down이 나타내준다.

(26) Did you write (copy, put, mark) down the telephone number?

우리가 글씨를 쓰는 경우에 종이의 앞부분에서 시작해서 아랫부분으로 써 내려간다. 말하자면 글씨를 종이의 하단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상단으로 써 올라가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다. 따라서 글을 쓰는데(write), 글을 쓰는 동작의 방향은 종이의 위로부터 아래로 이동하고 있음을 down이 나타내준다.

(27) He washed (hosed) the car down.

자동차에 물을 뿌려 세차(wash)하는 경우 자동차는 위로부터 아래로

닦여진다. 따라서 down은 세차하는 방향이 위로부터 아래로 행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28) You can buy this washing machine for 60 dollars down and 10 dollars a month for a year.

180달러짜리 세탁기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에 현금을 60달러 지불하고 나머지는 월부로 갚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세탁기 값은 120달러만 남게 된다. 따라서 180달러에서 120달러로 60달러만큼 줄어들게(down)된 셈이다. (28)의 down은 현찰이란 의미인데 현찰을 지불한 만큼 전체 가격이 줄어들고 있음을 down이 나타내주고 있다.

3. go down의 의미분석

구절동사 go down의 의미는 그 구성성분인 go와 down의 의미로부터 합성되어 나온다. 즉, go down의 의미는 go나 down과 관계없는 별개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go down의 의미가 go나 down의 의미와 무관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go도 의미가 확장되고 down도 의미가 확장되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go의 원형의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X라는 개체가 장소이동을 하는 것이고 down의 원형의미는 개체가 위쪽에서 아래로 이동하여 그 결과 개체가 아래쪽에 와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합성어 X go down의 원형의미는 X가 장소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쪽이며 이동한 결과 X가 아래쪽에 와 있음을 나타내준다.

(29a) Frank went down the hill as fast as he could.
(29b) They went down to breakfast.
(29c) The sun's going down.

(29a)에서 탄도체인 Frank는 화·청자가 있는 곳을 떠나 이동(go)하고 있는데 이동의 지표인 언덕의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또한 이동의 결과 탄도체는 지표의 아래쪽에 와 있는 상태를 down이 나타내 준다.

그리고 (29b)에서는 탄도체인 주어가 화·청자가 있는 곳을 떠나 이동하고(go) 있는데 이동의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또한 이동의 결과 주어는 더 이상 위에 있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식탁에 와 있음을 down이 나타내준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down의 기준점은 명시되고 있지 않지만 상황맥락으로 보아 이층에 있는 방이 될 수 있겠다.

또한 (29c)에서는 주어인 the sun이 화·청자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동사

go가 나타내준다. 그리고 주어의 이동방향은 위로부터 아래(down)로 움직인다. 즉, 공중에 떠 있던 태양이 수평선 밑으로 이동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down의 지표는 명시되고 있지 않으나 수평선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29a,b,c)와 같은 쓰임이 go down의 원형의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0) The steps go down in the direction of the river.

(30)은 산이나 언덕 같은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에 있는 강의 방향으로 계단이 놓여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주어는 공간상 장소이동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29a,b,c)와는 다르다. 그 대신 (30)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주어가 아닌 관찰자의 시선이다. 따라서 go는 관찰자의 시선이 산이나 언덕에서 시작되는 계단이라는 출발점을 떠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선의 이동방향이 계단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down이 보여주고 있다.

(31) He went down on his hands and knees.

(31)에서 주어는 높은 곳(P_1)으로부터 낮은 곳(P_2)으로의 장소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에 서 있다가 땅바닥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go는 제자리에서 신체가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down은 머리 같은 신체부위가 서 있을 때의 높은 위치로부터 엎드릴 때의 낮은 위치로 이동하는 방향 및 그 결과 낮은 위치에 와 있는 상태를 나타내준다.

(32a) Changsu went down to Busan.
(32b) I didn't go down to see my mother.
(32c) Let's go down the bank.
(32d) Will you go down to the library?

(32a)에서 go는 주어가 화·청자의 곁을 떠나 다른 장소로 이동함을 뜻하고, down은 주어의 위치가 목적지인 Busan보다 위쪽에 위치함을 말해주고 있다. 즉, 주어의 위치는 Busan보다 위도상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으로의 이동 및 그 결과를 down이 나타내고 있다.

(32b)에서 go는 청자로부터 주어가 멀어짐을 뜻하고, down은 주어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는 목적어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장소임을 뜻한다. 즉, 주어는 대도시에 있고 목적어는 시골에 있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주어는 대도시에서 시골로 이동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도시를 시골보다 중요한 장소로 인식함으로 도시 쪽은 up으로, 시골 쪽은 down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32c)에서 go는 화·청자가 있는 장소를 떠나 목적지인 bank를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뜻하고, down은 공간상 위쪽에서 아래쪽으로의 이동이 아닌 수평이동을 뜻한다. 그럼에도 down을 쓰는 이유는 손님은 그 손님을 맞이하는 기관보다 우위에 서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우리가 은행이나 가게(식당, 술집 등)을 찾아가는 경우 고객은 왕처럼 높은 위치(up)에 서 있고 맞이하는 가게의 직원은 왕을 모시는 신하처럼 낮은 위치(down)에 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손님이 가게로 이동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

(32d)의 경우도 (32c)와 마찬가지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우위에 서 있는 것으로 개념화되기 때문에 고객이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개념화될 수 있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IMPORTANCE IS UP, UNIMPORTANCE IS DOWN이라는 개념화를 엿볼 수 있다.

(33a) The tyre has gone down.
(33b) She discovered that the inflammation had gone down.
(33c) He knew that the water level had gone down.
(33d) We expect the price of food to go down, not up.
(33e) The food's gone down a lot.

(33)에서 go는 공간상 장소이동이 아닌 크기나 양, 질, 높이, 가격 등에 있어서의 변화를 뜻하며, down은 이들이 커지는 것(more)이 아닌 줄어드는 것(less)를 뜻하고 있다.

(33a)에서 타이어 속에 들어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면 당연히 타이어의 높이도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공기의 양의 감소는 높이의 감소(less is down)와 관계 있음을 알 수 있다.

(33b)도 (33a)와 비슷하다. 곪아있는 상처부위가 부어서 솟아 있다가 치료와 더불어 높이가 낮아지고 있음으로 down이 쓰이고 있다.

(33c)에서는 수위(water level)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며 그 결과 수위가 낮아진 상태를 down이 나타내준다.

(33d)에서는 음식의 가격이 올라가지(up) 않고 내려갔음을 down이 나타내준다. 예컨대 1,000원짜리 음식이 900원에 팔린다면 값이 100원만큼 줄어든 것인데 이러한 값의 하락을 우리는 공간상 위쪽에서 아래쪽으로의 장소이동처럼 개념화한다.

(33e)에서는 음식의 값이 내려 간 것이 아닌 음식의 질이 떨어졌음을 down이 나타내주고 있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LESS IS DOWN, MORE IS UP이라는 은유개념을 찾아볼

수가 있다.

(34a) He heard a mine explode and saw Jeff go down.
(34b) The ship had gone down.

(34a)에서 go는 Jeff가 높은 장소(P_1)로부터 낮은 장소(P_2)로의 장소이동이 아닌 제자리에서의 신체의 수직이동을 나타내며, down은 서 있던 사람이 땅으로 쓰러지는 방향 및 그 결과를 나타내준다. 즉, Jeff의 몸은 높은 위치로부터(up) 낮은 위치로 수직 이동하게 되며, 이동의 결과 땅바닥에 와 있음을 down이 나타내주고 있다.
(34b)에서도 주어는 수평선상에서 장소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에서 수직선상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즉, 바다 위에 떠있던 배가 제자리에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므로 배는 분명히 위로부터 아래로 이동했으며 그 결과 배가 수면 밑에 와 있음을 down이 나타내준다.

(35a) Tom went down by three sets to one.
(35b) I was feeling tired and ill and finally went down with flu.

(35)에서 go는 주어의 자세의 변화를 나타내며, down은 곧은 자세로부터 웅크린 자세로의 몸의 이동방향을 나타낸다.
(35a)에서 Tom이 시합에서 3:1로 패했는데, 패자와 승자의 몸의 자세를 관찰해보면 전자는 의기소침으로 어깨나 머리부분이 굽어있게 되지만 후자는 승리감으로 어깨나 머리부분이 곧게 펴지게 된다. 이런 경우 우리 몸은 높이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된다. 즉 곧게 펴고 서 있게 되면 움츠리고 서 있을 때보다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down은 승자의 자세(up)로부터 패자의 자세로의 우리 몸의 이동방향 및 그 결과 움츠린 자세의 상태를 나타내준다.
(35b)에서도 우리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에는 가슴을 펴고, 머리를 곧게 세우는 자세를 취하지만 몸에 병이 들면 가슴도 머리도 모두 움츠러들게 마련이다. 따라서 down은 건강한 자세(up)로부터 웅크린 자세로의 몸의 이동방향 및 그 결과로 인한 상태를 나타내준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FAILURE IS DOWN, SUCCESS IS UP이라는 은유개념을 엿볼 수 있다.

(36) My computer went down.

(36)에서 go는 컴퓨터라는 기계의 작동을 뜻하고 down은 컴퓨터의 작동이 중단 된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 같은 down의 의미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사람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어서야(up) 된다.

일어서야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람이 누워 있으면(down) 대체로 활동이 중단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down은 비활동(inactivity)으로, up은 활동(activity)으로 개념화된다(INACTIVITY IS DOWN, ACTIVITY IS UP).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 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가 down으로 표현되고 있다.

(37) A cup of coffee would go down nicely.

(37)에서 go는 커피가 우리 몸 안에서 이동하는 것을 뜻하고 down은 이동의 방향 및 그 결과를 뜻한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커피는 입안에서 시작하여 위장 속으로 이동하는데 입의 위치는 위장의 위치보다 높기 때문에 커피는 위로부터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그 결과 커피가 위장 안에 와 있는 상태를 down이 나타내준다.

(38) They were interested in whatever we had to say, and I have no doubt it went down in their notes afterwards.

(38)에서 go는 글 쓰는 이의 손이나 글씨의 이동을 뜻하고, down은 손이나 글씨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방향 및 그 결과를 나타낸다.

III. 마무리

구절동사는 영어학습자들에게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 구절동사를 구성하고 있는 동사의 의미와 전치부사의 의미로부터 이들의 합성어인 구절동사의 의미를 유추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며, 나아가 나날이 구절동사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구절동사들의 의미가 무한히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go down이란 구절동사의 의미를 분석해 본 결과 go down이란 구절동사의 의미는 그 구성성분인 go와 down의 의미로부터 합성되어 나오는 것이지 구성성분과 전혀 다른 별개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의 언어직관과도 일치한다. 왜냐하면 만약 go down이란 합성어의 의미가 go의 의미와도 상관없고 down의 의미와도 상관없다면 구태여 합성어의 의미를 go down이란 형식(form)으로 명명(naming)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go down이란 합성어의 의미가 go의 의미와도 관계가 있고 down의 의미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성어의 의미에 go down이란 형식을 붙여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절동사 go down의 의미가 구성성분인 go와

down으로부터 합성되어 나온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은유적 확장 탓으로 보인다. 즉, 구성성분인 go도 원형의미와 확장의미가 있으며, down도 원형의미와 확장의미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go down도 원형의미가 있고 확장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구절동사가 확장된 의미로 쓰일 적에 구성성분의 의미와 무관하게 보일 수 있다. 구절동사 go down에서는 UNIMPORTANCE IS DOWN(IMPORTANCE IS UP), LESS IS DOWN(MORE IS UP), FAILURE IS DOWN(SUCCESS IS UP), INACTIVITY IS DOWN(ACTIVITY IS UP) 등과 같은 개념화가 엿보인다. 바로 이상과 같은 은유개념이나 세상지식 등과 같은 인간의 인지작용을 통해 구절동사 go down의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볼 적에 상당수의 구절동사의 의미는 구성성분의 의미로부터 예측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영어학습자들이 구절동사의 의미를 무조건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기동. (1992). *영어동사의 문법*. 서울: 신아사.

이기동. (1995). *영어동사의 의미*. 서울: 한국문화사.

이기동. (1997). 인지문법에서 본 구절동사. *언어*, *22*, 667-701.

이기동. (1998). *영어전치사 연구*. 서울: 교문사.

이기동. (2000). The Phrasal Verb *cut X off*. *언어*, *25*(1), 129-148.

Bolinger, D. (1971). *The phrasal verb in English.*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Caroll, J. (ed.) (1962).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Collins Cobuild Dictionary of Phrasal Verbs. (1989). London: Harper Collins Publishers.

Haiman, J. (1980). Dictionaries and encyclopedias. *Lingua*, *50*, 329-357.

Kővecses, Z. (1986). *Metaphors of anger, pride and lov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Chicago Univ. Press.

Langacker, R. W. (1991).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 and New York: Monton de Gruyter.

Langacker, R.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linguistics*. Standford, CA: Standford Univ. Press.

Spears, R. A. (1993). *NTC's dictionary of phrasal verbs*. Chicago: NTC Publishing Group.

Sroka, K. (1972). *The syntax of English phrasal verbs*. The Hague: Monton.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University

정춘회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관광영어통역과
314-701 공주시 신관동 182
Tel: (041) 850-8970
Email: chjung@kongju.ac.kr

Received in January, 2009
Reviewed in February, 2009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rch, 2009